

## 일본기업 연구개발 집중을 위해 R&D조직 재편

- 장기불황과 엔화 강세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제조기업들이 최첨단 제품으로 승부하기 위해 연구개발조직을 집중시키고 있음.
- 연구개발 조직의 재편 특징은 △사내에 분산되고 있는 연구자 집약, △기술분야 교류를 통한 효율화 강화, △글로벌 시장 대응을 통해 모노즈쿠리 대국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목적

### □ 연구개발조직 재편 배경

- 일본의 주요기업이 연구개발부문을 재편하는 이유는, 채산성이 낮은 부문의 정리가 일단락됨에 따라 성장영역에 집중하여 강화할 필요성 제기
  - 히타치는 4월, 휴대폰과 반도체 등 채산성이 없는 사업을 다른 기업과 통합시켜, 8군데로 분산되어 있던 연구개발센터를 3개로 통합시켜 R&D시스템 개편을 통해 연구효율성을 제고
    - ⇒ 성장분야 중심으로 연구자를 재배치하여 국제경쟁력 향상
- 연구개발조직 재편의 특징은 △사내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자 집약, △기술분야 교류 강화, △글로벌 시장에 적극 대응하는 것임
  - 일본기업은 연구기능 재편을 통해 향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성장분야에서 비교우위 확보와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
  - 그러나 2010년 일본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5%증가에 그쳐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에 비해 재편 속도와 집중투자가 약하다는 평가

## 〈일본기업의 연구개발조직 재편 동향〉

### ▷ 개발강화로 분산된 연구자를 집약

미쓰비시케미칼 홀딩스	미쓰비시화학과 미쓰비시레이온의 바이오 관련 연구조직을 7월에 통합
리코	디지털 복합기개발을 강화시키기 위해 화학·전기·기계 기술자를 집약
다케다약품	2개의 연구거점을 통합, 질환 영역마다 100~150명의 팀으로 재편
스미토모공업	새로 건설한 연구소에 연구자 500명을 집약

### ▷ 글로벌시장 대응

도요타자동차	중국에 본격적인 연구개발센터를 설립
히타치	국내 8개 연구개발센터를 3개로 통합. 인도에 연구소 설립. 외국인 연구원 채용
에자이	미국에서 항암제연구 회사를 설립. 미국대학과 연계강화

### ▷ 사외연구자와 교류강화

일본전산	모터기조기술연구소 건설. 사내외 연구자 교류장소 제공.
시세이도	요코하마에 오픈이노베이션 그룹을 설립하여 사외 자원과 기술 활용

## □ 그룹 파워 결집

- 미쓰비시케미칼홀딩스는 바이오관련 연구조직을 통합하여 중요도가 높은 연구개발에 그룹 파워를 집중
  - 미쓰비시케미칼은 석유 의존형 산업에서 탈피하기 위해 바이오기술을 사용한 소재개발에 그룹 파워를 결집
  - 리코는 2012년도에 약50억엔을 투자하여 가나가와현에 리코테크놀로지센터를 건설.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재료 등을 연구하는 화학 관련 200~300명의 기술자를 집중시켜 연구 강화

## □ R&D 효율성 촉진

- 각 회사의 공통점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를 개발 초기단계부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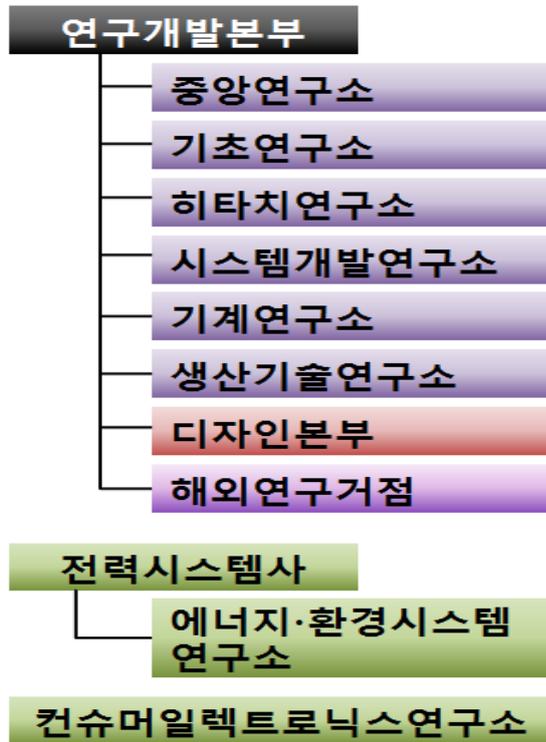
연계시켜 각자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융합시키겠다는 전략임

- 다케다약품공업은 1,500억엔을 투자하여 가나가와현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오사카와 츠크바에 있던 연구거점을 일원화하고, 국내 연구자 1,200명을 집중
  - \* 신규 연구소에서는 한 영역마다 100~150명의 팀으로 재편성하고, 신약 개발부터 제품화될 때까지 전과정에 연구자가 참여시킴으로서 효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

## □ 히타치제작소의 연구개발조직 재편 사례

- 국내 8개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소를 3개로 통합. 미국, 유럽, 아시아와 글로벌 연구개발체제 강화
  - 국내연구소는 사회이노베이션 사업을 선도하는 융합연구를 강화하기 위해, 6개의 코퍼레이트연구소와 2개의 디비전연구소를 △기초부터 응용까지 연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**중앙연구소**, △사회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**히타치연구소**, △정보기반기술과 모노즈쿠리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**요코하마연구소** 등 3개로 재편
  - 연구인력은 중앙연구소 900명, 히타치연구소 1,200명, 요코하마연구소 1,100명을 배치
  - 연구개발 본부내에 히타치그룹 전체의 기술전략을 통괄하고 사업전략과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지휘정하는 기술전략실을 설치
  - 해외에서는 현지의 니즈에 입각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, 인도에 신규 연구개발거점을 신설하는 등 2012년에는 해외연구개발 인원을 현재의 1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시킬 방침

● 현재 체제



● 2011년 4월이후 체제



<참고자료>

日経新聞「研究部門再編で競争力」(2011.2.17)

日立製作所ホームページ (<http://www.hitachi.co.jp/New/cnews/month/2011/01/0117d.html>)